



제 5 과. 자녀를 잘 가르치라

성경: 엡 6:4

찬양: 찬 199 장/나의 사랑하는 책, 복음송/선한 능력으로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1.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배운 찬송가(복음성가)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자!
2.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공동번역,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 희랍어 원문에는 “성나게 하지 말라” - 라고 하였습니다.
‘훈련과 훈계’ 로 하라고 하였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정신은 무엇인가?

I.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신다.

1. 교회안의 여러 상징적인 모습들과 예식들은 아이의 무의식에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이미지와 은유다. 당신은 십대가 되고 이십대가 되어 신앙을 떠나고, 이런 실천을 무시하고, 방황하다 곤경에 빠지고, 수많은 나쁜 결정을 한 후 결국 도시 한 구석에서 당신이 일곱 살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살아갈 때까지도, 이런 이미지화된 진리를 평생 간직하게 된다.
2. 당신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말을 잘 들었던 아흔아홉 마리 착한 척하는 양들을 버려두고 비뚤어지고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이미지가 내장 신경세포를 휘젓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당신은 그 목자가 제멋대로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목자가 겁에 질려 바위틈에서 울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할 때, 당신은 그가 양을 부드럽게 안아 곤경에서 건져 내고 미소 지으며 “이리 오렴,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I. 예전의 동물을 위한 청소년 사역

1.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라는 교회 중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떼어 내어 공식적으로는 교회 건물 안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패러처치 parachurch’ (선교단체)나 다름없는 공간으로 보내 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몸의 하나 됨과 보편성을 암묵적으로 부인하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엡 4:4-6)라는 바울의 놀라운 선언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예배했다. 형성과 사랑의 습관 바로잡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감안할 때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대별로 분할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습관 형성 방식 중 하나인 모방의 기회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늘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면 어떻게 본보기, 즉 평생 예수와 함께 살아온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성도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겠는가?
2. 우리는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 ‘묶어 두려면’ 그들이 신앙을 진심으로 드러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청소년 사역을 거의 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 형성적인 신체적 예배 대신에 이분법에 안주했다. 예배는 정보 전달의 전주곡 같은 정서적 체험, 즉 감정을 자극하는 30 분 음악에 이은 30 분 ‘메시지’가 되고 말았다.
3.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역동적인 일원으로 형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4. 많은 젊은이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대단히 의례적 동물들이다. 습관을 형성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을 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아주 오래되고 충분히 검증된 방식을 소개할 때, 그들의 신앙은 두 번째 생명을 얻는다. 그들은 그런 영적 훈련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인도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선물로 받아 들인다.
5.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근원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체인 그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대 문화에 만연해 있고 우리를 다른 이들과 피상적 관계만 맺는 사적 개인으로 축소시키는 자율과 독립의 의례에 맞서는 저항이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 파고들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사화(私事化)된 기독교-자신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냈다. 그와

대조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이어진 교회의 영적 훈련은 성도의 교통을 통해 물려받아서 공유하는 선물이다. 우리는 역사적 실천을 통해 우연히 같은 구주를 사랑하는 원자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운다.

6. 자녀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 중 하나는 역사적 기독교 예배와 여러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헌신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며 목적 지향적인 역사적 예배가 우리가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한다면, 청소년 사역은—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나머지 요소와 마찬가지로—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7. 형성적 청소년 사역에서는 젊은이들이 더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성령의 리듬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 신앙은 “많은 실천의 실천”이다. 이는 신앙이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실천과 훈련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훈련을 소개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갈 진입로를 소개받는다는 뜻이다.
8. 형성적 청소년 사역은 재미 대신 섬김을 추구한다. 재미에 초점을 맞추고 지향하는 청소년 사역은 계층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젊은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활동은 문화적, 사회경제적, 심지어는 인종적 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한 집단에게 “재미”있게 들리는 내용이 다른 집단에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 한 집단이 기대하는 경험이 다른 집단에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미에 초점을 맞추면 의도와 달리 다양한 구분선을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재미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소셜 미디어로 조장된,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더 광범위한 문화적 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교회는 우리가 습득한 자기중심주의를 바로잡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Ⅲ. 형성의 재형성을 위하여 – 공동체적 실천을 위하여

1. 함께 식사하라 – 식탁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쁨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2. 함께 기도하라 – 기도로 성서 이야기를 재연하는 교회력의 전통을 따라 보라. 이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3. 함께 노래하라 - “노래할 때 어떤 종류의 상호 복종이 일어나는가?” 라고 물을 때,
“먼저 함께 같은 가사를 노래할 때 공시성이 생겨난다. 서로 같은 시간에 때문이다.”
4. 함께 생각하고 독서하라 - 그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대신
교육자로서 공통된 일과 소명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라.

IV. 결론 - 통과 의례

1.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거듭 되새기고, 어린 시절부터
줄곧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학을 다스리시는 은혜로우신 주이심을 기억했다.
학생과 부모, 형제를 포함한 모든 가정이 예배당 성찬대로 초대를 받았다.
각 가정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기억을 다시 떠올렸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이라는 —하나님과 가정,
교회가 맺은—약속을 되새겼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의례를 통해 우리 자녀를 이 배움의 공동체로 보낼 수
있었고, 학생들은 성례전의 은총에 손을 흠뻑 적신 채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이곳은 은총의 언약 안에 자리 잡은 배움의 공동체였다.
이것이 신앙공동체, 교회이다.
2. 틀을 잡는 기도는 지혜와 조명, 공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강의실이 더
넓은 세상 속에 자리 잡게 할 수도 있다. 강의를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 학생들이
캠퍼스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일터와 세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V. 함께 기도하기

1. 자녀들과 함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시도하며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자!
2. 연속으로 모이는 속회 중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보자.
3. 속회안의 속도원들의 기도제목에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VI. 숙제

제 6 과, (원 교재에는 7 과) “당신은 원하는 바를 만든다!” 내용을 원 교재(책)를
통하여 미리 읽거나 설교를 통하여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